

최고의 스포츠 클럽 선정

남원시 거점스포츠클럽... 엘리트선수 운영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회장 진봉모)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2018년 상반기 스포츠클럽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거점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었다.

남원 거점스포츠 클럽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A(우수)등급을 획득해 최고의 클럽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타 클럽에서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인 남원지역에서 운영하는 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해 세간에서는 엘리트선수 운영에 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2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4개 종목 선수반 육성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지며 소년체전 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또한 자체 스포츠클럽 활동외에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전지훈련 유치 노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내 영향력 확대, 선수반 참가자에게 학업 및 심리/진로 상담지원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선수반과 생활체육반의 선순환이라는 대한체육회의 평가서는 공부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는 거점스포츠클럽 창설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은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등 4개 종목에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포함 약 580여명이 회원에 가입하고 있다.

지도자는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유능한 엘리트 지도자를 채용하고, 축구 도민체전 우승, 전북 교육감배 테니스대회 우승 및 준우승,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및 각종대회 메달 획득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진봉모 회장은 "앞으로도 남원을 대표할 만한 미래의 스포츠 인재 육성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농산물 브랜드 '춘향팥인' 개발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2일 농협 중앙회 본관 대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 주관해 가진 시상식에서 '2018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6월부터 각 농협지역본부와 농협시군농정지원단이 추천한 자치단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심도있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환주 시장은 평소 '농업인이 행복해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농업이 강한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팥인'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발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남원 씨감자 육종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



이환주 남원시장

정을 실천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처음 시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50여명에 이르는 남원농산물을 하나로 통합한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팥인'을 개발해 남원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2013년

개발한 춘향팥인은 지난해 81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도 850억원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남원 운봉읍에 건설한 허브밸리와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추진, 농협과 함께하는 지자체 협력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공과 유통, 체험·관광을 함께 어우르는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눈부신 농업발전을 이룩하는 선도적인 역할에 적극 나섰다.

한편 이번 수상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책을 펼쳤을 뿐이라면서도, 시 농업 관련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한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성장 농업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맛기행 루트 소비자 팸투어

지난 3일~4일 도시 일반소비자 60명을 대상

임실군은 지난 3일~4일 도시 일반 소비자 60명을 대상으로 1일 코스 맛기행 루트 소비자 팸투어를 추진했다.

이번 팸투어는 향토음식 관광상품 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향토음식, 문화자원, 관광명소 및 농산물 가공사업장 등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음식과

광 상품 및 맛 명소를 발굴,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일에 1차 팸투어는 30명이 참가하여 오수 꽃삼지뚱데기마을에서 오색비빔밥, 삼색떡 만들기를 체험하고, 지사 아나농원에서는 전통 고추장을

직접 만들었다.

4일에 섬진강담뽕문화관을 시작으로 향토음식인 다슬기 요리를 맛보고, 덕치 구담마을 탐방 후 강변사리마을에서 클램프와 치즈떡 구워먹기 체험접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한 스토리라인 구축 및 잘 알려지지 않은 맛기행 루트를 개발, 특화된 음식관광 상품화로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제일고등학교는 한빛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너의 꿈을 비춰봐'

순창제일고 한빛제 성황리

순창제일고등학교(교장 이재청)는 지난 1일 향토회관에서 '제20회 순창제일고 한빛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순창제일고 한빛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순창제일고만의 특별한 축제로, 1,2학년 학생 200명과 교직원, 학부모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회 프로그램은 스피드게임, 콘미션게임, 100초게임 등 다양한 게임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학급프로그램은 동구포차, 지옥갑박, 개천에서 용남, 치즈에 꼬치니, 창문디방 등 특색있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재청 교장은 "오늘 공연은 학생들이 각자 동아리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고자 마련했다"면서 "특히 바쁜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내주시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승진 학생회장은 "오늘은 학생들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넘치는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더없이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좋은 결과로 보답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치유벚 힐링명상 캠프 큰호응

순창군, 치유농장서 개최

순창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치유벚 힐링명상 캠프'를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치유벚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해 명상, 바른자세, 힐링(치유) 테마로 1박2일 단위로, 2회에 걸쳐 체류형 농장에서 열렸다.

치유벚영농조합법인은 건강, 장수, 발효를 테마로 치유농장 10곳이 모여 올해 설립됐으며, 7곳의 농장이 캠프에 참여해 수도권에서 모인 100여명의 참가자를 맞았다.

군은 명상과 힐링을 테마로 치유형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 농촌마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을 근간으로 이번 캠프를 기획했다. 그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주부 등 가족단위 참여객 모집에 성공했다.

식사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주변에서 채취가능한 산야초 및 채소를 중심으로 건강한 농가밥상으로 제공해 도시민들이 고향의 옛 추억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우리군은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5단계 중 장기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중에 있다"며 "아직은 미비하지만, 농장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순창군 전체가 치유밸리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소방서, 전기히터 등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남원소방서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사용이 증가하는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 전기매트, 전기열선 등 난방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매트,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난방제품에 대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전기히터·장판은 2016년 311건에서 2017년 408건으로 약 30%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전기열선에 의한 화재 역시 2016년 216건에서 2017년 315건으로 약 46% 증가했다.

겨울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시 KC마크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을 금해야하고, 외출시에는 꼭 콘센트 전원을 차단하며, 전기매트 보관은 접히는 부분이 없게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해야 매트 안 전선이 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난방제품 등의 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계절이 다가왔고, 소중한 생명 및 재산보호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사용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수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임실군 오수면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20회 오수면민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2일 임실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박진두 부군수,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한양수 도의회 부의장, 이성재 군의원, 백종완 오수면장, 관내 주요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1,200여명이 화합한마당행사를 함께했다.

김용근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행사가 면민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 믿으며, 지역발전협의회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두 부군수는 "오수면은 반려동물 공공장표시설을 비롯해 제2농공단지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군정과 면정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